

어린이집 줄고 노인복지시설 늘었다

저출산 영향 등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 매년 급증 재가노인복지시설은 2021년 32곳→올해 60곳으로 “폐원 어린이집 장기요양기관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제주지역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 증가와 관련 서비스 확대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올해만 해도 12곳의 시설이 새로 생겨났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2021년 32곳에서 2022년에는 48곳으로 증가했다. 이어 올 들어 4월 말까지는 총 60곳이 운영 중으로 2년 전과 비교해 시설 수가 감절가량 늘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목욕 등의 서비스 중에서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장기요양기관으로 분류되는 제주시 관내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 편이다. 이 중에는 출생률 하락 등으로 문을 닫은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곳도 있다. 제주지역 어린이집은 2021년 354곳, 2022년 333곳, 2023년(4월 말 기준) 320곳인데 매년

줄어드는 규모와 비슷하게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새롭게 들어서는 모양새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줄어들면서 폐원한 시설을 리모델링해 장기요양기관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는 어린이집이 아동 관련 시설과 노인 복지 시설 등을 일컫는 노유자(老幼者) 시설에 해당되는 만큼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전환 시 용이한 점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앞으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 신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은 2025년까지 첫 지정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

이다. 심사 결과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면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지정되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이나 자진 폐업을 앓는 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져도 유효기간 없이 제공 기관으로 유지됐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사전 준비 작업으로 1년 이상 미운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일제 정비를 벌인다. 정비 대상은 재가장기요양기관 14곳으로 제주시는 현지 조사와 청문을 통해 지정 취소에 나설 예정이다. 4월 현재 제주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요양시설 49곳, 재가노인복지시설 60곳, 재가요양기관 77곳 등 총 186곳에 이른다. 전선희기자

골프장 도외 손님 5개월 연속 ↓

골프 해외여행 붐물 속 도내 업계는 주말 그린피 울려

골프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코로나 19 시기 호황을 누렸던 제주지역 골프장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제주자치도가 10일 밝힌 2023년 도 골프장 내장객 현황에 따르면 2월 제주지방 골프장을 찾은 다른 지방과 외국인 내장객은 고작 8만 8037명에 그쳤다. 13만778명을 기록했던 전년도보다 32.7%나 줄었으며 도의 내장객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행인 점은 제주도민 내장객이 6만2021명으로 지난해 5만8292명보다 6.4% 늘어난 부분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2월 내장객은 15만58명으로 전년도 18만9070명보다 20.6%가 줄었다. 올들어 1월 -45.9%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33.4%나 급감했다.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지자 골퍼들이 동남아 등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지역 그린피는 주중 16만2750원으로 소폭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말은 22만 원으로 오히려 올라 해외골프를 부추기고 있다. 그나마 일부 골프장들이 코로나 특수 기간 도외 내장객 유치를 위해 축소했던 도민할인 이벤트를 확대하면서 도민 내장객이 늘었다는 점에 위안을 삼아야 할 처지다. 이와관련 관광업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제도 수도권 경쟁력 강화로 제주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더 늦기 전에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위영희기자



사회 원로와 천주교 사제들이 1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상국기자

“민생을 버리는 정권은 존재 가치가 없다”

제주사회 원로·천주교 사제 등 215명 시국 선언

제주지역 사회 원로와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 전직 사회운동가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10일 시국 선언을 했다.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 37명, 지역 사회 원로와 전직 사회운동가

178명 등 215명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을 버리는 정권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며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고를 통보한다”고 시국 선언

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들을 탄압해 할 대상으로 삼고 있고, 양곡관리법 등 농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절절한 요구 역시 거부했다”며 “‘대한민국 1호 영입사원’을 내세웠지만 서민 삶은 파탄 지경이며, 꽃다운 청년들을 찾아간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지가 급박하자 노동자

를 탄압하고, 구시대적 공안정국을 조성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외교 문제는 굴욕 그 자체로 미국 CIA에 대통령실이 도청됐는데도 제대로 항의조차 못했고,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며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의 폭정을 시민 힘과 지혜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기자

쿠팡 불공정 계약 감시단 발족

제주지역 노동단체와 정당이 쿠팡 물류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단을 꾸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와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 진보당 제주도당은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감시단 발족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은 생활물류법과 사회적합의를 준수하고 불공정 계약서를 폐기해야 한다”며 “도내 3개 캠프를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계약과 생활법 위반에 대한 감시활동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어? 이 문제들, ○○서 나왔던 건데...” 모 중학교 2-3학년 수학시험 기출문제 논란에 재시험

제주시 모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이 1학기 중간고사 수학 시험을 다시 치르게 됐다. 이 학교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으로 ‘1학기 중간고사 중 수학 교과 재시험 실시 안 내’ 가정통신문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10일 이 학교에 따르면 재시험은 지난 3일 치러진 중간고사 2-3학년 수학 시험에서 기출문제를 재출제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실시되는 것이다. 2학년은 전체 수학 교과 26문제 중 7문제, 3학년은 26문제 중 13문제가 재출제 문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일은 3학년 학생이 기출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에서 해당 내용을 발견해 지난 8일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같은 날 2학년에서도 기출문제를 찾아냈다. 2023학년도 제주도교육청의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엔 평가 문항을 출제할 때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일, 이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도록 했다. 이에 학교 측은 9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2-3학년 해당 교과목 시험 문제 중 기출문제에 대한 재시험을 결정했다. 재시험 날짜는 3학년은 오는 15일, 2학년은 16일이다.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회의 결과 평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교과목 시험 문제 중 기출문제에 대한 재시험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기출문제는 참고서에 나온 문제, 이미 출제된 문제, 다른 학교에서 출제된 문제, 인터넷에 떠도는 문제를 포함하는 등 그 범위가 넓다”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재시험을 마치고 기출문제 출제와 관련된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위해 학교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선희기자

2023 글로벌 제주상공인 포럼

2023 Global Jeju Business Forum

마주한 대전환의 시대, 제주경제 기회·도전

국내외 제주출신 상공인들의 글로벌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새로운 기회와 방향 모색을 위한
2023년 글로벌 제주상공인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주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행사일시 : 2023년 5월 18일(목) ~ 5월 19일(금)
| 장 소 :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2층 회의장
| 문 의 : 제주상공회의소 / 064-757-2164

구분	시 간	내 용	
5월 18일 목요일	14:00-16:00	· 등록	
	16:30-18:00	· 개회식 · 기조강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8:00-20:00	· 환영만찬	
5월 19일 금요일	10:00-12:00	· 제주상공인포럼 주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 기업의 역할 발표: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종합토론> 좌장: 오경수 제주미래가치포럼 의장 토론: - 고창중 중국상해 한국상회 부회장 - 이준곤 탈레스 코리아 국방부문 상무 - 정환중 (株)골든에그 대표이사 - 오성익 국토교통부 기획관	
	14:00-16:30	초청강연 · 초청강연 1 - 고경찬 벤텍스(주) 대표이사 코로나처럼 경영하라 · 초청강연 2 - 최중원 배우(前 국회의원) 기업과 예술의 만남: 기업의 사회공헌 그리고 문화예술	특별세션 · 청년상공인포럼 주제: chatGPT 시대, 제주경제의 미래를 예측하다. 발표: 황재선 SK디스커버리 부사장 좌장: 송상섭 (株)한림공원 대표이사 토론: - 김태훈 LG U+ 상무 - 윤형준 제주스타트업협회 회장 - 최백준 킬론 대표
		16:30-17:30	· 제주상공인 한마음 음악회
폐 회	17:30	· 폐회 및 환송만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상공회의소

재외제주경제인총연합회

(사)제주메세나협회
Jeju Meccat Association